

—요원을 위한

<월간·제14호>



가족계획소식

사업을 위한 이상적인 행정방안

충북 제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석한

<이 논문은 훈련기간 중 파제로 제출된 것임> 행정요원으로서 가족계획사업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이상적인 행정방안은 어떤 것일까? 현재 보건소단위별 가족계획사업은 보건행정계소관(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으로 사무가 분장되어 되어 있다. 즉 가족계획사업은 보건행정계장(경북은 가족계획계장이 있음)이 일선 행정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가족계획요원의 임명은 보건소장의 내신(内申)에 의해 교수 각 읍면의 주재요원과 보건소 지도원을 발령한다.

이런 관계로 읍면 장의 관심도는 —보건소요원이란 축면에서— 낮은 편이다. 읍면 장은 가족계획의 활동부진·사업실적부진의 책임이 보건소장에게만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읍면 단위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계획요원의 사업추진 능력을 평가할 때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나 장기근속자가 월등히 양호하다. 신규배치된 미혼요원은 결혼전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열의가 없고 박력이 없으며 성질치 못한 경향이 때때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요원은 주변의 신망을 잃어 가족계획사업 추진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예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계획사업 추진의 행정적문제점을 제기해본다.

① 읍면요원의 1차적 감독자인 읍면장이 요원에 대한 관

리와 관심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 읍면직원상호간에 있어서도 가족계획사업상의 횡적종족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② 가족계획요원은 임시직으로서 매년 재발령을 받아야 한다는 신분상의 불안감때문에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목표달성을>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업의 질적판리가 소홀하다. (루우프삽입에 있어 초삽입보다 재삽입율이 훨씬 높다.)

④ 기동력부족으로 이동시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한편 행정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본다.

① 제도적으로 인사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정책면에서 가족계획요원을 정규직으로 양성화해서 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하에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② 연고지를 우선으로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하고 대민관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③ 가족계획사업은 어느 의미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전행정공무원이 가족계획에 동원되어 추진되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우선 보건소단위만이라도 남녀전직원이 가족계획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직원별 전담 구역을 정해서 읍면주재요원을 직접간접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④ 루우프나 정판수술등의 권리비는 실제로 권장한 직원에게 지급하여 계몽활동의 의욕을 고취시킨다.

⑤ 읍면 가족계획·결핵 관리·모자보건요원등을 통합하여 다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의 부락별 전답구역을 정한다. 전답된 구역별로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내부정리는 전답업무별로 정리케 한다.

⑥ 보건소단위로 가족계획시 범을 면을 정해서 보건행정전반에 걸쳐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단계별로 확대해간다.

⑦ 요원의 자질향상과 월중 사업추진의 실적평가 및 애로



사항·문제점을 개내어해결, 상급기관에 건의키위한 월례 회를 개최한다.

⑧ 사업이 부진한 읍면동은 타면요원을 동원, 집중계몽지도하여 당해요원의 관심도와 그 활동을 강화케하는 동기를 만들어준다.

⑨ 연 2회 (상하반기) 보건요원(가족·결핵·모자보건)의 직무를 평가실시, 연말종합평가는 평균평점 80점 이하는 신년도 재발령을 중지하고 우수한 요원은 표창을 하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시행한다.

⑩ 보건소 지도원으로 하여금 전답읍면을 지정해서 월 2회이상 순회지도케 한다.

발행인 흥종관
인쇄인 김태동

발행소·가족계획연구원
서울서대문구 녹번동115
(우편번호 120-02)
⑧ 8003~7

신분상 불안감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

행정지원·협조가 잘 안 돼: 읍면단위

지상전시실

<12>

생식 생리·생식 기관

인간이 지구상에 살아온 역사는 약 1천 5백만년이다. 그사이 태어나고 죽는 첫바퀴속에서 현재 지구인구는 40억에 달하였다. 종족의 계승·번영·생존등은 그 번식력 즉생식에 의존해야한다. 그러므로 많은 출산은 바로 그 종족의 번영을 끝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생활환경·생활양식·보건의료의 발달로 사망률은 급격히 저하해서 이제는 번영을위해 많은 출산이 아니라 계획적 출산과 양질의양육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

생식은 남·여의 성적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는 결합하여胚신이 형성된다.

이러한과정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피임은 인위적으로 이과정에 개입하여 성자와 난자의 결합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남성생식기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진다. 고환은 또한 남성출문을 만들어 남성의 특성 즉 인종의 발전, 미래인간의 파피 또는 진보, 그리고 여성의 유인들의 원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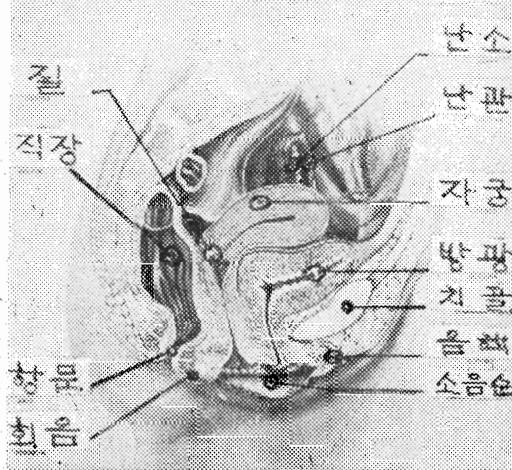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부고환에서 발육되고 정관을 거쳐 정낭과 전립선에서 활동에너지를 받아 음경을 통해 사정된다. 사정시 정액은 3~4 cc이며 그 3분의 2는 정낭에서 3분의 1은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분비액으로 전성분에 포함된다. 정자의 비율은 그다지나다.

남성의 영구피임을 위한 정관수술은 정자가 통과하는 정관을 끓거나 자르는 것으로서 정액속에

여성 생식기

FEMALE REPRODUCTIVE ORGAN

卷之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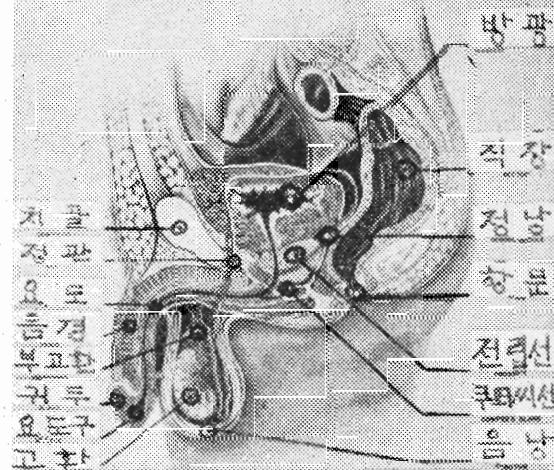


2

남성 생식기

MALE REPRODUCTIVE ORGANS

〈측면도〉



정자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남성생식기판은 상적이며 부부생활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성생식기는 남성보다 복잡하다. <아기씨>라고도 한다는 남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져서 난관에 나온다.

한편 성교에 의해 질내에 사정된 정자는 자궁을 거쳐 난관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난자와 정자가 난관에 만나면 그곳에서 수정이 되어 그 수정란은 자궁에 들어가 성장한다. 난자가 배란후 24시간 즉 약 1일간, 정자에서 약 3일간 살 수 있다.

영구폐입법은 남자 또는 여자가 통과하는 길인 남편이나 자드는 수술이다. 그 수술은 정관수술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갖고 있다. <글: 송건용 연구 2과장>

■ 요원수첩 <-----> 요원수첩 ■

월 경 주 기 법 (오기노법)

재래식 수태조절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콘돔성교와 월경주기법·기초체온법·성교중절법·침내정자를 죽이는 피임법과 다이어트법·경관판·피임법, 세척법(洗滌法·Douche)등이 재래식 피임법이다. 콘돔(가족계획소식 10호에 소개)을 제외한 재래식 방법은 앞으로 차례차례 복습해본다.

▲ 월경주기법…배란기와 수태 가능기간을 피하는 방법으로 일명 <오기노법>이라고도 한다.

‘오기노학설은 1924년 일본의 오기노 규우사구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다음 월경이 시작하는 전날부터 쳐서 12~19일이 비탄기·수태가능기간이라는 것이 오기노학설의 골자이다.

즉 12~16일까지는 배란기, 17~19일 3일간은정자생존기간이므로 이기간을 수정가능기간으로 친다. 이 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곧 월경주기법이다.

이때 다음 월경이 언제쯤 시작될지 이를 알아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적어도 6~12개월의 월경주기를 맞춰본후 이 거에 의해 다음 예정일을 추정해서 배란기·수정가능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 30일월은 $10 + (30-28) = 12$ 로 월경시작후 일째부터 수태가능기이고 수태가능기 최종일은 $17 + (30-28) = 19$ 일이 된다. <편집실>

<편집실>

가족계획 시범마을을 지도·육성해서 모범 새마을과 같이

②가족계획사업 보급방안: 어머니회 강화... 현재 농촌에는 어머니회를 비롯 7~8개의 모임이 있으나 거의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실정임. 어머니회를 일체 재정비하여 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각부탁별로 덕탕에 영향력있는 부인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지식과 움직이는 모임이 되도록... 정기모임엔 군간부급 공무원이 필히 참석해서 새 지식을 주지시켜 태도변화에 실효를 거두도록 한다.

④시범마을 지도육성...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시범마을> 내지 <시범단지> 또는 <시범농가>를 지정, 타에 모범·견본이 되도록 지도·육성하고 있으나 제일 중요시해야 할 가족계획사업에는 이런 행정시책이 전혀 갖구되지 않고 있다.

이 기회에 <가족계획시범마을>
(가칭)을 설정하여 모범새마을
파 같이 군민(郡民)의 교육장
으로 삼아 본받도록 유도하고 성공
요인을 널리 홍보·계몽토록 한다.

또한 각부탁별로 난관·정판수

술을 받은 가정 중 자녀수가 적고 연령이 젊은 모범가정을 택해 <가족 계획시범가정>으로 정한다. 이집 대문에는 시법가정의 표창을 달고 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집

가족으로하여금 자기경험담을 발 표시켜 망서리는 타인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가족계획실천의 용단을 내리도록 유통한다.

④ 전공무원의 요원화...군수 산하 전공무원에게 가족계획교육을 실시, 누구든지 이사업을 소신껏 추진할수 있도록 한다.

현재 11명의 요원(미혼 7명)만으로는 효과를 좋게 기대할수없는게 현실이다. 특히 본군과같은 산간오지에서는 기동력도 부족하니 <도보로 매일 10여km를 출장수행하다>는 걸을 범위이다.

월간 10여일의 출장도 1차감독자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전공무원을 요원화하여 자가기정에서부터 사랑방·초당방·우물과 함께 밸렛으로 본운동이 번지도록 확대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③ 윤월의 사기 양양 : <완전신분

**내고장에맞는
가족계획사업
보급방안을
말한다**

지구명 : 농촌지역 (강원도 횡성군)

허 철 선

>의 보장도 없는 계몽원으로서는 현실과 같이 무거운 임무를 안고 애타게 통분서주하는 우리나라 요원의 사기는 매우 저하돼 있는게 사실이다.

그 이유로 ②면요원은 거의 면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에서 면·부면장·총무계장등의 지휘통솔을 받으며 보건소에서 내려보낸 본연의 업무목표량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몇년씩 늦게 공무원으로 들어온 서기보보다도 매우가

(1) 일급부
원세군의 도례는 그의 주시에 속해 있고 순수한 농족의 신간으로서 면 1번 25개월에 교민이 비교적 영토 농가로 생활할 경우 그를 위하여 중앙선 전제국 허락하고 속도로 차운다. 1월에 생활권에 속해 있다. 군제법 면사무소 간에는 1월과 10월에 산간에서 인데가 많고 버스로는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이 다함. ④가족 회화 모임의 전수율 2월. 보건자 소득 9명. 모두 11명으로 1월 25명. 당시 가족 회화 모임은 주제로 산업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이정교는 축제와 함께 제출되었음)

약해 요원들에게는 안정감과 기회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예 : 작년에 정규 5급을 류공무원이된 3~4년후에도 각종포상이 실시되고 있으나 요원은 아예 <성질이 틀리는 공무원(?)>으로 간주되거나 경시되고 있음)

④요원들에게는 영전의 기회가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실적을 많이 올려도 보건소에서는 따뜻하게 노고를 치하하거나 본인들의 애로를 최대한 해결해줄 수 있는 깊은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사업 초기부터 균속하는 요원도 몇명있지만 <해봐야 그렇다>는 식이다. 요원들은 이러한 근무자세가 됐기때문에 계속 적응할수 있는 상당한 대응책이 강구돼야한다.

④요원은 관외출장이 전혀 없
다. 10여년을 근속한 요원도 선

진지(先進地) 견학 한번 못한 새
똑 같은 업무를 되풀이하고 있
으니 이런 환경에 인간이면 누
구나 권태에 빠지지 않을수 없
을 것이다. 연 1회라도 선진지 견
학이 꼭 있어야 능률이 오를 것
이다.

④ 타성부제 : 가족계획사업은 처음부터 은근하게 남모르게 추진했던 비공개사업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상담자가 내조했다가도 당부자가 없거나 타직원이 있으면 용무를 취소하고 먼 시골길을 되돌아 가는것이 홍촌의 현실이다. 공무원은 앞장서서 이 타성을 속히 실천해야겠다.

자기의 불임수술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효과가 전혀 없고, 콘돔 1장을 수령할 때도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감추는것이 시골사람들이다. 이런 태도로는 가족계획사업이 법국가적 사업으로 확장·실시되는데 있어 악직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⑤ 우대제도 신설: 새마을 지도
자에게는 지도자증명서까지 발급

해가며 교통비
감면·민원서류
수수료 면제등
특혜조치를 취
하고있다. 이제
도와같이 난관
·정부결차시술
을 받은 자에
게도 일정연령
의 선을정해지
방.자치단체에
서 가능화한 모

든 편의를 제공했으면 한다.
(예: 차기단체별 특수사업에 우선권부여, 새마을사업-주택건설·지불개량-등 각종사업 및 융자에 우선권을 부여, 과급호파를 노린다.)

⑥ 결론: 이상과 같이 5개항의 보급방안을 모색해보았으나 대개 행정시책의 개선을 요하는 방안인바 이는 자치단체장 내지는 시·도지사의 용단과 관心得도가 문제시된다. 요컨대 시장·군수·시도지사와 내무부 및 각부처 가족계획분야에 영향력 있는 모든 관리에게 가족계획연구원교육을 실시, 우선 관心得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질실히 느낀다. (강원도의 좋은 예를 소개하면 수백년을 두고 해결못한 화전지(火田地)를 현도지사의 용단으로 약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3개년계획으로 성공했다.)

<각원도 원성군 보건행정계작>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요원들의 광장

〈경험답〉

천안시는 종합 평점제도 시범지역

충남 천안시 보건소 지도원 박영숙

<처나안 삼거리호
웅~> 을 아시죠?
푸른 벼들 가지가 가리마다 축축 늘어진 우리 천안시는 올해 종합평점제도 시범지역으로 뽑혀서 현재 가족계획 실태조사를 하고 있

보건소에는 선임지도원까지, 지도원이 6명인데, 여섯이서 교대로 한 명씩 남아 내무를 봐요. 나머지는 전부 접집마다 한집도 빠먹지 않고 가정방문을 하려 나간거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는겁니다.

천안시는 도시이면서 시골같고, 시
골같으면서도 도시같은 그런 어중간
한 지역이라서 우리나라의 표본지역
으로 안성맞춤이 될지도 몰라요. 이
어중간한 도시가 우리들이 일하기에
어려움을 안겨다주는군요.

차라리 범두리 시끌같은데는 가정방문을 하기에도 편리하고 실직도 올리는데 무리가 없어 좋았는데요. 점점 중심부로 들어오면서는 가정방문이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점들과 짹빽히 붙어있는 건물들 그리고 좁고 좁은 대문이 우리들의 신선파악기판의 (단) 으로 볼ーシ게 해요

우리들은 분필을 갖고 다니면서 대문에 표시를 해가며 끌가지 가정방

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굳게 틀린 철문을 차마 두드리지 못했는데 이젠 안두드릴 수가 있나요? 큰 출대문집 안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할 줄 몰랐던 이가 많은데 놀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가지를 택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정신없이 기분이 좋아지지요. 피임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싫다는 사람이 거의 없이 아주 흥미있게 들어요.

이런게 또 시끌파 철대문집파 다른 면이더군요. 시끌아주머니들은 부끄럽고 속스러워서 피하고, 도시 중심가에서는 으레 수궁하면서 들어주는 태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어느 새 가까운 사이었던 것처럼 친숙해져요. 직업에대한 뿐듯한 감회와 함께 히마를 각제해요.

한번은 웃지못할 일이 있었어요.

□ 요원들의 시

봄이 가고 나면
강영자
나는 먼 옛날
그 슬픈 일을
하나 둘 떠나고,
네이처처럼
하얀 길을
쫓았던 헛됨에
끼어
마루 표지판에 하자
둘 빙자 표지판에
4월의 하얀 걸을 절
어갈 때다.
아름다움을 표지판에
진진 세월을 지나왔을
그다.
시밭에 기다리는 시간
일다.
그대 낮 이와 정원을
찾아
여기저기 기다리는 이
음을 알아주세요.
복이 가고 있는
에 서서
푸른 계절에 맞아 눈
인사하면서
조용히 정말 조용히 기
다녔다.
▶국제주보건복지부

<훈련생원고>에게 주어진 제목은 <어머니회활용방안>이다. 언제가선임지도원파 루우프식술때문에 출장을갔다가 오는 길이었다.

어느 부탁을 지나다가 그부탁 어머니회장이 뛰어오면서 향의 조로 말한다. 「왜 지난 <어머니 날>에 면대항 어머니회원 음악회연대회를 학다고 하더니 안하느냐?」

음악경연대회를 꼭 하는줄알고 밤마다
다는데 아닌가. 선임지
를 보면 키위해 <언젠가
겨두고 홍천 보건소를
돌아오는 길에 많은
려고 애쓰는 고장파전
는 고장과의 차이는 뿐
니회역시 마찬가지다.
로 잘되어가는 어머니



모여서 합창연습을 했
도월파 나는 그 자리
는 한다>는 말을 남
향했다.
얘기를 나누었다. 절활
혀 성의를 나타내지 않
렷하게 나타난다. 어머
님이 부러워할 정도
회가 있는가하면 반면

아주 부진한곳도 있다. 어머니회 활동이 부진한 곳에 활력소가 되는 무슨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어머니들에게 우선 호기심을 갖게 해보자.

호기심을 갖게 하자면 ① 1년에 1회정도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발표하게 한다든가 ② 또는 장기적으로 발표회를 언제 어디서나 순월계 마련하고 ③ 음악회를 자주 열면서 ④ 좀 힘은 들겠지만 가족계획에 대한 짧은 단막극을 공연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행사는 면마다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순위를 정해서 실시합이 바람직하다.

가족계획과 모자

다. 가족계획은 ①터울조절 ②원하는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알맞는
상의해서 가족수를 계획하는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자 알맞는 피임방법을 사용하느냐>
자녀의 엄마, 한 나라의 여
다. <그 가정의 행복을 점
이야하고, 그 동네·사회·국
나라의 연성을 보면 안다>

모자보건사업중에는 한 여성이 임신
독증 등을 방지할수 있도록 매월
으면 영유아등록을 해서 각종에 방검
서는 힘 날는데까지, 알고 있는곳

가족계획을 원하시는 분이나 일상
보건지소에 등록을 해서 건강관리를
다 받게한다.

의 광장

지도 모를 를 만났거든요. 그가 나를 보고 대뜸 하는 말도 주시오! > 래요. <네? > 하니까, <여호와의 종인 교회에 나갈테니 주시어요? <보건소에서 나왔어> 거주 출몰려서더군요. 할 수 없었고 말았지요.

의 종인? 수금사원, 아니 그 좋다! > 문을 안 열어주면서 건소에서 나왔다면 친절히 주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인심 좋은 도시지요.

삼거리 흐응~> 친절한 시 저 순박해보이기만 해요. 겸게 그을린 얼굴을하고 출구에 출장들을 나가느라 여네요.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일도 사업이 잘되어서 앞으로 실시되기만을 다같이 빌

□ 요원들의 시 □

를 봄 향 어 花
밥 라 종 린 그 양.
밥 라 종 린 그 양.
에 배 린
풀 아 린
난 며스 린
데 올 저
제 린
제 린 한
며 추 린
밀 질 린
나 가 린
가 을 린
과 쪽

화 야
에
황
지
영

<훈련생원고> 가족계획은 못낳게 하는 것만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다. 못낳게 하는 것만이 가족계획의 전부가 아니에 맞춰 낳고 싶을 때 ③의 아기를 ④아빠와 함께 낸다.

임방법이 있는데, 오는 <어니문제이다.> 해서 한 남자의 아내, 한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겠으면 그 가정의 여자를 보니를 점치려면 그 지역과 그 얘기가 있다.

해서 임신으로 오는 임신증을 운영하기도 한다. 아기를 낳 판리, 모자의 건강을 위해 있다.

있는 어머니들은 보건소나 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얼굴이 예쁘면 정 관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계 속되는 관악구보건소 안에서는 <전직원 밤 8시까지 비상 근무 하라!>는 전화벨소리.

토요일(12일) 오후에도 관악구보건소 가족계획지도원들은 얼룩무늬 예비 군복차림에 비상근무증, 박치원소장(민원봉사실장겸)도 커다란 키에 얼룩무늬차림이다. 그는 말한다.

『동장회의나 각기업체 기관장 회의 때 가족계획을 주지시킵니다. 동장은 통반장을 통해 주지시키고, 기업체장은 돌아가서 간부들에게 주지시키게 됩니다. 각종반의 회람을 통해 보건소업무내용을 충분히 알립니다.

또 하나의 계통방법은 가정에 침투하는 것, 이것입니다. 어렵드라도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처음엔 과제를 전달해주고, 그다음 생각할 여유를 줘서 실천도록 유인하는 게 제일이죠. 인적활용방법은 각지도원끼리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는 것이지요.』

가족계획은 김옥봉(金玉奉·女) 보건사업계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관악구보건소는 신설된 보건소라서 여러 가지 애로도 많다.

『변두리 신설지구라서 부수포실적은 올라가도요, 정관은 오히려 실적이 오르질 않아요. 시내에 있는 여기도 시내 지만 의사만이 잘하는 줄 알아요, 글쎄.』

김옥봉계장은 전국의 <가족계획센터마다 선임지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센터목표는 따로 있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려면 <지도원끼리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김계장의 의견이고 또한 공유속선임지도원도 적극적인 친성.

관내 가족계획센터는 사당동에 있다. 오월 7명에 의사 1명인데 여기는 선임지도원이 있어야 모든 면으로 좋을 거라고 한다.

봉천보건진료센터에는 요원이 직접 파견될 때도 있다. <봉천센터>에서는 모성보건·결핵판리등 11개 부서에 1만 3천 2백 49건의 실적 중 가족계획실적(6월 말 현재)은 자고마치 4천 4백 63건이나된다.

선임지도원 공유속씨는 관악구 전체인구를 약 68만으로 잡고 있으나 그때그때 이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오면 변두리 구인 관악구에 일단 머

보건소 텁텁

10

둘다가 나중에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예가 많은 곳.

남자인구 34만에 여성인구 역시 34만 5천 정도가 추산인구. 이

중 가입여성은 13만, 실가입여성은 10만 6천 7백 29명(74년 통계)이 53·84평 방길로나 되는 관악구의 23개동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실적은 정관이 목표 1천 8백 40에 9백 75, 루우프목표 4천 6백에 3천 3백 70, 먹는피임약 4만 8백에 1만 9천, 콘돔 4만 2천에 2만 1천 2백, 인공임신중절 55에 49이다.



◆비상근무복차림의 요원들...뒷줄 오른편부터 5째가 박치원소장, 4째가 김옥봉계장, 앞줄 왼편부터 2째가 공유속선임지도원이다. 뒷줄 물은 새로 지은 관악구보건소.

서울시 관악구를 찾아

변두리 지역은 루우프를 해도 확인 나가면 이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서류상 주민등록증 확인이 있어서 <감사가 나올 경우 곤란하다>는 것. 그래서 타지방 사람의 실적을 창부에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경력수당도 올해부터 아직 안나왔지만 무엇보다 <가족계획>가 따로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애로는 이뿐이 아니다. 수용비가 분기별 5만 원정도인데 모자란다. 현실적으로는 8만 원정도라야 된다고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목표량을 더 넘으면 하고 있다. <더 달라는 것> 중에는 차량도 따른다. 가족계획 담당계장의 <수당이 없다>는 걸 서울시내 11명의 계장끼리 모이면 <하는 소리>. 관악구 가족계획관계라면 최서무계장이 빠져서는 안된다. 최계장은 이곳에 하도 오래(15년) 있어서 통반장 얼굴을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래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분>이라고 요원들은 말한다.

<관악구보건소에서...신세훈 연구원>

<제14호> 1975년 7월 15일 <5>

종합평점제도 어디까지 왔나?

목표량에 대한 문제점이 기회있을때마다 거론됐다. 이로인한 각종 부작용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눈의해 왔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 평점 제도란?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인 목표량제도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실적통계의 질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목표량 달성을 급급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질적인면을 소홀하게 하는수가 있다. 사업실적통계는 곧 사업의 진도측정과 사업계획에 이용되도록 점계분석평가되고 각종 연구및 관계분야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의 질의 중요성은 재론의여지가 없다.

당연구원에서는 피임방법별 목표량에서 오는 각종 부작용및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종합평점제도를 시도하여 보사부와 충청남도 공동으로 그시범사업을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군 2개지역에서 실시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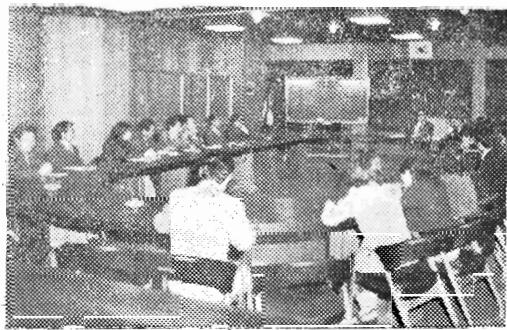
종합평점제도란 피임방법별로 목표량을 주지않고 각피임방법에 대한 피임효과를 계산·점수화하여 전체점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자궁내장치는 1건에 2점, 불임수술은 1건에 7점, 먹는피임약은 1사이클에 0·0·08점, 콘돔은 1타보급에 0·04점으로 정하고 연간 어느 방법을 택하든 예정된 점수를 얻는방법이다. 즉 지역에 따라 피임방법별로 잘 보급되는 것이 있고 또 보급이 어려운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잘 보급되는 피임방법을 최대로 보급하도록 한다.

이런 원리로 천안시와 아산군은 피임방법별로 목표량이 없다. 다만 74년도 실적을 점수로 환산한 총점수만큼의 목표점수는 있으나 <꼭 달성을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다.

다만 요원의 일상활동 내에서 대상자를 계몽·권장하여 어

목표량 없이 피임방법별 전체점수 평가



◇천안시·아산군에서는 종합평점제도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결과에 따라 목표량제도시비가 마무리된다.

느방법이든 최대 보급을 기하도록하고 있으며 이의 실적은 가족계획 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천안시·아산군의 실적

(5월말 현재)

1. 루우프시술

루우프시술은 천안시에서 73년에 4백 3건인데 비해 74년에는 3백74건이며 올해 5월 말현재는 3백25건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아산은 역시 73년 1천 1백38건인데 비해 74년에는 1천72건이며 75년 5월 말현재는 8백73건으로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실제 이 두지역은 루우프시술이 그리 잘 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불임수술

천안시는 73년 23건, 74년 26건, 75년 1백27건으로 월등히 상승하고 있다.

아산군은 73년 49건, 74년 37건, 75년 1백 3건으로 역시 상승하고 있다.

불임수술의 실적상승은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천안시의 74년도 불임시술 전체실적은 69건, 아산군의 74년도 전체실적은 70건이다. 이에 비하면 1975년도 5월말 현재 두 지역실적은 74년도 전체실

적의 몇 배를 달성했고 또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3. 먹는 피임약

천안시는 73년 3천 4백74사이클, 74년 3천 6백 1사이클, 75년 3천 5백88사이클로 거의 같은 추세이며 아산군 역시 73년 7천 8백88사이클, 74년 8천 4백62사이클, 75년 8천 4백11사이클로 같은추세이다.

이두 지역은 <먹는피임약>의 보급이 잘 되는 곳임을 알수있다.

4. 콘돔

천안시는 73년 3천 5백13타, 74년 1천 6백19타, 75년 1천 2백69타로 같은 추세이다.

아산군은 73년 5천 6백38타, 74년 5천 6백11타, 75년 5천 6백91타로 같은 추세였다.

5. 종합평점

각피임방법의 실적을 점수화한 평점제의 계산을 보자.

천안시는 73년이 1천 3백85점, 74년이 1천 2백83점, 75년은 1천 8백88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아산군은 73년 3천 4백75점, 74년 3천 3백 6점에서 75년은 3천 3백69점으로 별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종합 평점 제도의 전망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사정에 따라 가족계획을 보급함이 오히려 피임효과를 늘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종합평점제도 보급은 <피임방법별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무리한 사업의 부작용을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꼭 장려해야 할제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결여여러가지 자료를 얻을수 있게됐다. 1974년즉 피임방법별로 목표량이 주어졌을 때의 사업실적·질적면과 종합평점제에서의 사업실적·질적면을 비교 할 수 있게되는 한편 요원집단활동을 통한 기초조사와 비교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등 다각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자료를 얻을수 있게됐다.

아직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다만 이런 사업이 현재 천안·아산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글·평가 1과 김병숙 연구원>

1975년 7월 15일 <제14호>

잘 되는 피임방법별 취대 보급

어머니회를 통한 가족계획 모임

지도요령 4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의식하며, 할 일을 생각한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즘 한가지 새로운 사실은 어느 때 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생활관습과 전통적인 관념을 계승해오던 농촌 여성들도 어머니회라는 자생조직을 통해 점차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의 일 아니었다. 지역별로 어머니회 활동이 활발한 곳일수록 지역주민들이나 시부모나 남편들은 부녀자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 여성들의 의견은 가정생활의 결정권을 좌우한다. 이러한 점은 여성 우위나 특권에서가 아니다. 여성들의 판단이나 활동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필요성과 타성을 갖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 이·동단위로 조직된 어머니들의 모임은 단순한 여가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어머니들의 모임은 오늘을 보다 뜻있게 살며, 앞으로 보다나은 생활을 위해 무엇인가 그들의 꿈을 실현해 보자는 내용들이 담겨진 모임이다. <마을금고>나 <어머니회 금고>도 그렇고 가족계획을 실천하려는 뜻도 그러하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별로 내재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에 관한 화제는 아직도 표면적이 못된다. 많은 대상자는 강한 필요를 느끼면서도 많은 궁금증과 의아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의논하고 싶어도 적절한 상담역이 없거나 수치스러워하고 있다.

가족계획요원들은 이러한 어머니들을 방치해 둔채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요원들의 계몽방법은 너무나 표면적이거나 직선적이다.

그리면 어머니들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어머니들은 <딸이나 동생과 같은 요원과 가족계획을 상담하는데 궁금증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오늘날 <가족계획>이란 용어를 모르는 기혼부부가 어디 있는가? <백

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기혼부부는 <가족계획>이라는 말만은 다 알고 있다. 다만 그 방법과 그 실천과정 그리고 그 방법들이 <건강상 무리>(부작용)는 없는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다.

또 가족계획요원들과 상담중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는 전혀 이해가 안간다>고 한다.



◇어머니들은 딸·동생같은 요원앞에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머니들은 가족계획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부딪치는 잡다한 문제들로 의논을 하고 싶어한다.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친구처럼 모든 일을 상의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를 스스로에 의해 모여진 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도력이 있는 회장이 있어야 하며, 생활과 관련을 갖는 많은 문제를 상담해 줄수 있는 유능한 상담역이 있었으면 한다.

<오늘을 사는 지혜>는 보다 학리적이고 과학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 어제의 우리농촌은 오늘의 농촌과 다르다. 또 내일은 한층더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형태

원고 모집

『가족계획소식』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소식입니다.

느낀 감상문·경험담·수필이나 시(詩) 등을 2백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써서 사진과 같이 보내주세요.

『가족계획소식』편집실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목소리(문예작품·논문·전의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요원들의 광장』에는 시·수필·경험담·논문 등 ②『발언대』에는 시정·애로·건의사항을 실은 후다음호에 이어대한 답변을 합니다. ③『요원수첩』란에는 일선요원에게 필요한 학술내용을 게재하는데, 혹시 알고싶은 사항은 메모해주세요. ④ 8면기사... 여러분들의 기사거리를 사진과 같이 제공해주세요. ⑤ 기타... 가족계획당 계장이나 모자보건요원들의 원고(논문등)도 체재합니다.

편집실

적인 것 만은 아니다. 내용이나 생활하는 양상의 변화도 대포한다.

10년전의 계몽 방법이나 내용은 오늘에 와서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어제 한 이야기는 오늘 다시 필요치 않은 것도 많다. 보다 새롭고 알찬 내용은

어머니를 귀족에 들킬것이고 또 들어줄 아랑을 갖게한다. 많은 어린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그러나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삶의 변화를 갖는 때도 있다. 너무나 평범한 일을 요원들은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몇마디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가 어머니들에겐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 어머니들은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마의 땀을 닦을 줄 모르며 논밭에서 바쁜 일손을 거두고 있다.

가족계획요원들은 이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지도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인간을 지도해야 하는 일 같이 어려운 일은 없다. 또 인간을 지도하는 일 같이 조심스러운 일도 없다.

<글·지도과 활동부 실습강사> <7>

지도원 수기

양호교사에서
가족계획이 되어

박연숙

<충북 제천군 보건소 지도원>



자 이상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을 가운데 앉혀놓고 어렷이 마구 놀려대는 것이 아닙니까?

놀립거리가 된 학생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머리가 길고 불결한 데다가 볼수가 없을 정도로 누렇게 된 얼굴입니다. 옆으로 다가갔더니 놀리면 학생들은 일제히 「선생님, 그애한테서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가지 말아오!」 합니다.

아이는 낫새전 경북영주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예상대로 노동이라고 합니다.

양호실로 네리고 왔습니다. <무료급식 빵>을 먹인 다음 구내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환경을 자세히 알아보니 글쎄 막노동자집안에 자그마치 애들이 일곱 명, 어른까지 모두 아홉식구였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우리집 아이들이 입던 옷가지 몇 점을 추려 가지고 그 학생과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서도 범투리였어요. 여기는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집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학생의 어머니는 그저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허름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싸 가지고 간 보따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요.

그제서 저는 제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를 건강을 보살펴주는 양호교사>라고 했습니다만, 그 어머니는 별로 달갑잖은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무지한 여인에게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얼마간 저는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처께 학교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했어요. 그제야 주름살을 펴면서 <선생님이 우리 아들 머리 깎아주셨느냐?>며 <아랫복으로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거두하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싸 가지고 간 옷을 끌려보였습니다. 저는 이 옷을 <아이들에게 입히라>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 그 여인은 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이리 많아 자식이 주렁주렁 생겨 이 고생이냐?>면서 도리어 죄값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는 환심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이 때 마침 아이들이 하나씩 모여 들어서 잠시 후 좁은 방에 가득 모였습니다. 우글우글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몸에 맞는 웃음을 찾느라 야단법석들입니다.

한참을 이 광경만 바라보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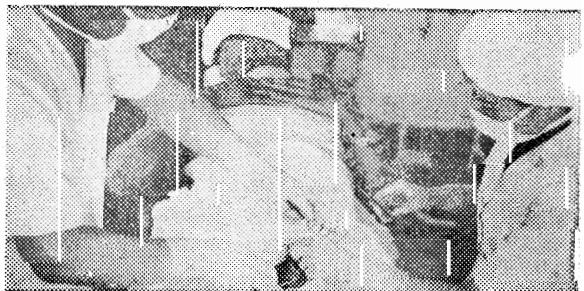
그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아는 작아요. 여기에 의료수준은 물론 아서 사람의 생명은 점차 연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례에 아주머님은 자식을 7명이나 낳았으니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아주머니네 가정처럼 모두 9명이나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명끝에 반문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해서 낳았지….>라고만 힘 안들이고 대답 하잖겠어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어째서 이 아주머니 귀에는 <가족계획> 이란 말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계속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딸이 더효녀노릇을 한다고요. 현시대는 잘 살기위한 생존경쟁시대입니다.>



◇양호교사가 을망졸망 7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의 정관수술을 안내했다.

저는 <둘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듣고 있던 아주머니는 <그럼 나는 안되지요? 너무 낳아서! 나라에 면목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요?>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 순박한 아주머니에게 <이미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임을하세요. 계속 낳으면 열두명도 넘을테니, 이왕 낳은 자식이라도 건강하게 잘 살려야지요. 아들은 국군용사를 만들면 그것이 나라에 끈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어요?>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39살입니다. 아직도 7~8년 정도는 피임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먹는 피임약, 루우프·콘돔·정관수술 등 다양으로 얘기했더니 <저녁에 주인이 오면 상의해서 내일 아이 편에 연락할테니 선생님이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집 학생은 작은 종이쪽지를 들고 기본줄은 얼굴로 양호실에 들어섰습니다. 내용은 <오늘 땅장을 아이아부지가 정관수술 카는거를 할려고하니 수고스럽지만 선상님이 병원에 같이 가여 말만 좀해주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부탁대로 당장 <학살의 아빠>를 데리고 보건소로 가서 불임시술을 시키겠습니다.

그후 그분은 경과가 좋았습니다. 그분은 친구네를 글씨 보건소에 소개해왔지 뭐예요?